학습영역	작품	작가	쪽수
적용학습 현대소설 01강	달밤(14)	이태준	1
적용학습 현대소설 02강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4)	박태원	9
적용학습 현대소설 03강	서투른 도적(0)	현진건	-
적용학습 현대소설 04강	논 이야기(17)	채만식	16
적용학습 현대소설 05강	잔등(11)	허준	24
적용학습 현대소설 06강	너와 나만의 시간(12)	황순원	30
적용학습 현대소설 07강	후송(4)	서정인	36
적용학습 현대소설 08강	도요새에 관한 명상(9)	김원일	39
적용학습 현대소설 09강	겨울 나들이(9)	박완서	45
적용학습 현대소설 10강	명량한 밤길(8)	공선옥	49
적용학습 현대소설 11강	아주 느린 시간(0)	최일남	-
적용학습 현대소설 12강	도도한 생활(8)	김애란	53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년 수능특강 / 해설 1~2쪽)

[앞부분 줄거리] '나'는 사대문 안에 살다가 성북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여기에서 신문을 배달하는 황수건을 만난다. 그는 '나'를 허물없이 대하면서 가족 이야기, 과거에 급사*로 일하다 쫓겨난 이야기, 정식 배달원이 되고 싶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일에도 실속 없이 참견한다. 아내는 우둔한 그와 말을 주고받는다고 핀잔을 주지만 '나'는 순박한 성격을 지닌 그가 마음에 든다. 이후 황수건은 정식 배달원이 될 것이라고 자랑하지만 얼마 후 '나'는 그가 보조 배달원 자리마저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곕쇼?" /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걸르지 않고 잘 옵쇼?"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류?" / 한즉 또,
"늦지도 않굽쇼, 일쯕이 제때마다 꼭꼭 옵쇼?" / 한다.
㉠"당신이 돌을 때보다 세 시간은 일쯕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하니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하루라도 걸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런뎁쇼, 선생님?" / "왜 그류?"
"삼산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습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랴굽쇼, 운동을 합죠." /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 달라고 졸라 댑죠.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뎁쇼, 이 녀석이 막 불근댑니다그려. 그래 한번 쌈을 해야 할 턴뎁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뎁벼들 턴뎁쇼…… 허."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섭쇼, 엊저녁엔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놨습죠. 그리구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깐 없어졌는뎁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루 굴려다 버렸는지, 뻔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뎁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죠." /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뎁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뎁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죠." /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립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 "아, 제가 생각해 냈습죠."
한다. / "왜 그렇소?" /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뎁쇼. 아 삼산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뎁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용인) 노릇을 합쇼. 밑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장사를 할 턴뎁쇼." / 한다. / "무슨 장사?"
"아, 방학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턴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겝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뎁쇼." /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밑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돗값을 물어 주었다. 포돗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

[A]
다.
그런데 포도원께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 카…….*"
를 부르며 큰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이태준, 「달밤」

*급사: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부리는 사람.
*우두: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일본 가요의 가사로, 우리말로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임.
*깁: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1. 윗글에서 '나'의 대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바탕으로 질문하며 듣는다.
② 상대방의 이야기와 유사한 경험을 언급하며 듣는다.
③ 상대방의 이야기에 비춰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듣는다.
④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듣는다.
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비판적으로 듣는다.

2. '참외 세 개'와 '포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참외 세 개'와 달리 '포도'는 수건이 곤경에 처하는 계기가 된다.
② '참외 세 개'는 '포도'와 달리 '나'에게 부탁하기 위해 선물한 것이다.
③ '참외 세 개'와 '포도'는 모두 수건이 돈을 주고 사 온 것이다.
④ '참외 세 개'와 '포도'는 모두 수건이 장사할 밑천에 해당한다.
⑤ '참외 세 개'와 '포도'는 모두 수건이 '나'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3.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현재의 신문 배달원과 수건이 비교되는 내용을 보니 수건의 일솜씨가 야무지지 못했군.
② ㉡: 급사가 다시 되기 위해 수건이 계획한 내용을 보니 수건은 어리석은 인물이군.
③ ㉢: 수건의 우둔한 말에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에서 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④ ㉣: 장사 밑천을 대 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수건은 이해타산적인 인물이군.
⑤ ㉤: 금실이 괜찮았던 아내마저 도망간 수건의 불행한 삶을 보니 연민이 느껴지는군.

4. 윗글의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아비가 받았던 아이를 구덩이 둔덕에 털썩 놓아 버린다.
비는 한결같다. 산골짜기에는 물소리뿐 아니라, 개구리, 맹꽁이 그러고도 무슨 날짐승 소리 같은 것도 난다.
아이는 세 번째 들여다볼 적에는 틀림없이 죽은 것 같았다. 다시 구덩이 바닥에 물을 쳐내었다.
가마니를 한끝을 깔고 아이를 놓고 남은 한끝으로 덮고 흙을 덮었다.
황 서방은 아이를 묻고,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쩔름거리며 권 서방의 뒤를 따라 한길로 내려왔다.
아직 하늘은 트이려 하지 않는다.
"섰음 뭘 허나?"
황 서방은 아이 무덤 쪽을 쳐다보고 멍청히 섰다.
"돌아서세, 어서."
"예가 어디쯤이지."
"그까짓 건…… 고무신 한 짝이 아깝네만……."
"……."
"가세 어서."
황 서방은 아이 무덤 쪽에서 돌아서기는 했으나 권 서방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권서방이 쫓아와 붙든다.

- 이태준, 「밤길」

① [A]에서 '나'는 말을 걸지 않음으로써, <보기>에서 권 서방은 말을 건넴으로써 상대방에게 마음을 쓰는군.
② [A]는 '불빛 없는' 길을 통해, <보기>는 '쩔름거리며' 걷는 길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군.
③ [A]는 '노래'를 부르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통해, <보기>는 '무덤 쪽'을 보고 위치를 묻는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군.
④ [A]는 '달빛'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보기>는 '소리'들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사건의 비극성을 부각하는군.
⑤ [A]와 <보기>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밤으로 설정하고 있군.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년 수능특강 / 해설 2쪽)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황수건'이 못난이임을 알아보지만 편견을 갖지 않고 그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말동무가 되어 준다. 신문 배달 보조를 하던 '황수건'은 어리숙하고 똑똑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된다.

"그런뎁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죠."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뎁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뎁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죠."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 냈습죠." 한다.

"왜 그렇소?"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뎁쇼. 아 삼산 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뎁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 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즈카이* 노릇을 합쇼. 밑천만 있으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장사를 할 턴뎁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턴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 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겝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뎁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밑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첫마디로, /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께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 케 …… 와 나 …… 미다카 다메이…… 키 …… 카 ……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를 부르며 큰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우두: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
*마마: 천연두를 이르는 말.
*고즈카이: 잔심부름을 하는 남자 고용인을 이르는 일본어.
*차미: 참외.
*얼른하다: 얼씬하다. '얼씬'은 조금 큰 것이 눈앞에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모양.
*직각: 보거나 듣는 즉시 곧바로 깨달음.
*깁: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5. '나'와 '황수건'의 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황수건'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주는 친교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② '황수건'은 자신의 지식, 경험 등을 상대에게 알려 주는 정보 전달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③ '황수건'은 의도적으로 청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설득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④ '나'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주는 친교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⑤ '나'는 말을 재치 있게 하여 상대의 기분을 즐겁게 해 주는 오락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6.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황수건'은 배움이 부족한 인물로서 자의적인 판단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어.
② ㉡: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③ ㉢: 장사 밑천을 대 준 '나'에게 장사가 잘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야.
④ ㉣: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어.
⑤ ㉤: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황수건'에 대한 연민이 표출되어 있어.

정답 및 해설

• 적용학습 현대소설 •

정 답

1	①	2	①	3	⑤	4	②	5	⑤
6	③	7	⑤	8	③	9	⑤	10	⑤
11	②	12	④	13	⑤	14	④	15	①
16	①	17	③	18	④	19	④	20	②
21	⑤	22	①	23	③	24	②	25	②
26	④	27	④	28	②	29	⑤	30	③
31	⑤	32	①	33	⑤	34	④	35	③
36	①	37	④	38	④	39	④	40	⑤
41	⑤	42	④	43	해설	44	해설	45	③
46	④	47	①	48	①	49	⑤	50	④
51	③	52	⑤	53	②	54	⑤	55	②
56	④	57	⑤	58	⑤	59	②	60	②
61	③	62	⑤	63	④	64	②	65	②
66	⑤	67	①	68	⑤	69	⑤	70	③
71	①	72	⑤	73	②	74	③	75	②
76	③	77	⑤	78	①	79	④	80	⑤
81	④	82	①	83	⑤	84	①	85	⑤
86	④	87	③	88	④	89	④	90	①
91	①	92	④	93	②	94	해설	95	⑤
96	해설	97	해설	98	②	99	⑤	100	③
101	②	102	④	103	③	104	②	105	④
106	해설								

해 설

1. [출제의도] 대화 방식의 특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이 글은 수건과 '나'의 대화가 두드러진 작품이다. 수건은 '나'와의 대화에서 모자라고 아둔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는 수건을 반가워하고 수건에게 호의를 보이면서 그의 말에 질문을 하고 맞장구를 치기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나'는 수건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며 듣지만 그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가 수건의 말에 비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나'는 수건의 말에 공감을 표할 때도 있지만, 이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대화에서 '나'가 지닌 문제나 그에 대한 해결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참외 세 개'와 '포도'는 모두 수건이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선물한 것이다. 이 중 '포도'는 포도원에서 훔친 것이기 때문에 수건이 포도원 주인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참외 세 개'와 '포도'는 모두 수건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나'를 위해 가져온 것이다.

③ '포도'는 수건이 포도원에서 훔친 것이다.

④ '포도'는 장사할 밑천이 아니라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가져온 것이다.

⑤ '포도'와 달리 '참외 세 개'는 '나'가 없을 때 집에 두고 간 것이다.

3.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수건이 참외 장사의 밑천을 대 준 '나'를 한동안 찾아오지 않는 것은 참외 장사를 망쳤거나 아내가 도망간 사건 때문이지 '나'와의 이해관계를 따져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그가 '나'를 위해 포도를 가지고 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 따르면, 수건의 배달 시각이 늦었다는 점에서 일솜씨가 야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 따르면, 수건은 날마다 사무실로 가서 무작정 조르는 것으로 급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우두에 대한 수건의 황당한 말을 계속 듣고 고마움까지 표시한 것은 '나'가 수건에게 선의의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⑤ ㉤에서 계속되는 실패와 동서의 괴롭힘으로 금실이 좋았던 아내마저 도망가게 되는 수건의 삶은 연민을 자아낸다.

4. [출제의도]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불빛 없는' 길은 밝은 달빛을 부각하고, <보기>

에서 '쩔름거리며' 걷는 길은 황 서방의 불행한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나'는 수건이 무안하지 않도록 말을 걸지 않으며, <보기>에서 권 서방은 멍하니 선 황 서방에게 말을 건네며 그의 고통에 마음을 쓰고 있다.
③ [A]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통해 수건의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무덤 쪽'을 보며 위치를 묻는 행위를 통해 황 서방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A]는 비단을 깐 듯한 밝은 달빛의 이미지를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기>는 밤의 빗소리, 물소리, 개구리, 맹꽁이, 날짐승 소리를 배치하여 아버지가 죽은 아이를 묻어야 하는 사건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A]는 밝은 달이 뜬 밤을, <보기>는 아직 하늘이 밝아 오지 않는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가 '황수건'의 기분을 즐겁게 해 주고자 말을 재치 있게 하는 부분은 지문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③ '황수건'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니 '나'에게도 우두를 넣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또, '나'에게 참외와 포도를 가져와 먹어 보라며 이야기한다. 이로 보아 '황수건'은 친교적 화법, 정보 전달적 화법, 설득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황수건의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유용한 이야기를 해 줘서 고맙다고 대답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반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의 친교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황수건은 장마로 참외 장사를 접게 된다. 그리고 황수건은 못난이 라고 알려져 있지만 인간적 면모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포도는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황수건은 사람들에게 못난이로 알려져 있으며 어리숙하고 우 둔하게 행동하여 어디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는 황수건의 집안 사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황수건의 순박한 인정이 담긴 포도임을 알기에 아껴 먹은 것 이다.
⑤ 가출한 아내로 인한 슬픔과 세상 풍파로 마음을 크게 다친 황 수건의 쓸쓸함을 작가는 달밤이라는 애상적 분위기를 통해 한층 부각하고 있다.